

## S&P, 볼리비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

- 2월 26일 S&P社는 볼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+에서 B로 1단계 하향 조정함.
- S&P社는 최근 볼리비아의 정국불안 가중과 재정개혁정책 후퇴를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,
- 향후 볼리비아 정부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차입 또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부채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조달에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힘.
- 볼리비아는 지난 2월 12일 정부가 공무원 임금인상 약속을 어기고 개인 소득세(7%→12.5%) 인상 등을 포함한 긴축 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, 이에 항의하는 경찰이 항의 시위에 나섰고 군 병력이 경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.
-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은 세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였고, 각료 전원이 사퇴함.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마약 단속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.
- 볼리비아의 공공부채 규모는 GDP의 80%인 61억 달러,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7.5%에 이르고 있으나, 정국불안과 볼리비아 정부의 긴축정책 후퇴로 금년에도 재정적자는 GDP의 6.3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  
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